

보살의 길

2012년 여름호 제49호



금천구치매지원센터에서 3월 20일부터 12회기 직업치료를 받았습니다.



사회복지법인 혜명복지원
혜명불교양로원



김은숙 영양사

소중한 하루

제가 양로원에서 근무 한지도 벌써 8년이 지났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 속에서 그날이 그날 같은 하루 하루를 지내다보니 세월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지 새삼 놀라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르신들이 저희 양로원에 계시다가 다른 요양원으로 가지거나 또는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 모습은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봉사온 분들에게 무엇이든 고마움을 표시하고자 커피를 타주시던 박봉선 어르신, 대장암으로 수술을 받으시고 입맛이 없다고 국수를 해달라고 하시던 손순복 어르신, 이름은 생각나지 않지만 매일 된장국만 해달라고 하시면서 방에만 누워 계시던 할아버지, 건강하게 잘 계시다가 갑자기 치매가 와서 요양원으로 가신 최인순 어르신, 막걸리 한잔하고 주무시다 돌아가신 어르신 등...

가끔은 지금도 그 곳에서 잘 생활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이 문득 문득 들기도 합니다.

이렇듯 양로원에서 생활하시던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하시면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관계로 요양원으로 전원을 하시게 되어있지만 오랫동안 살던 곳에서 낯선 곳으로 떠나야 하는 두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편이 짠한 아픔으로 밀려오곤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어르신들처럼 노인이 되겠지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양로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답니다. 나이가 들면 지금껏 내가 생활하던 것과는 달리 불편한 점이 참 많다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할 수 있고 나 스스로 생활 할 수 있는 하루 하루가 참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른 분들보다는 조금이나마 빨리 알 수 있다는 점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시작해볼까 합니다. 항상 반갑게 맞이해주고 인사나누어 주시는 저희 양로원 어르신들과 함께요...

이 영화는 실화를 토대로 만든 영화이다.

어느 날 취미로 즐기던 헬기라이더를 타고 하늘 높이 날고 있던 찰라, 헬기라이더가 돌풍을 맞으면서 불가항력으로 상공에서 급강하 하면서 깊은 산중에 추락했고 헬기라이더에 매달렸던 주인공 필립이 눈을 떴을때, 그곳은 낯선 병원의 침상위였다. 주치의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그에게 이르길 "선생은 평생 수족을 자유자재로 쓸 수 없는 전신 신경마비 증증환자" 라고 선고했다. 퇴원하면서부터 전동휠체어 없이는 이동이 불가능했고, 말하자면 상시 돌봐주는 손길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전신불구의 상위1%의 백만장자 필립이 어느 날 가진 것 이라고는 건강한 신체가 전부인 하위 1%의 무일푼 백수 드리스와의 예측불허의 동거가 시작되면서 이야기가 진행된다. 실직상태인 드리스가 구인공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바로 바로 필립의 저택이였다.

드리스를 본 필립은 2주동안 자신의 손발이 되어 한시라도 떨어지지 않고 간호하며 버틸 수 있는지 시험해보기로 하고 드리스를 조건부로 채용했다. 한편 참을성이라곤 눈곱만큼도 찾아 볼수 없던 드리스는 오기가 발동하면서 좌충우돌 소임을 다한다.

이 사실을 알고 난 필립의 친구는 드리스의 전과를 문제삼아 그를 해고하라고 종용하지만, 드리스에게 사람의 냄새와 따뜻한 애정을 느끼면서부터 그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필립은 12개의 방과 5개의 욕실이 딸린 파리의 대저



한 일 성 입소자

영화 감상문 언터처블

택에서 의지할 곳을 찾지못해, 방향과 변민 속에서 하루하루를 허송하고 있다 어느날 펜팔을 시작했다. 펜팔이 몇 해를 거듭했지만 상대의 연인과 실제 대면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안 드리스는 그녀와의 만남을 권유하지만, 필립은 선뜻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

그런 가운데 약속했던 2주가 지났다. 필립과 드리스는 아직도 한지붕 밑에서 동거를 지속한다. 아니 어쩌면 오래도록 함께 살게 될지도 모른다.

필립의 생신날, 일가친척이 모두 모였다. 모두가 생일을 축하 하려고 온듯하지만 재산상속에 관심이 더 많아 필립의 건강상태를 확인이라도 하려고 모여든 사람들이었다. 늘 그랬듯이 따분한 클래식을 들으며 근엄을 떨고 있었다. 드리스의 눈엔 따분하기 그지 없었다. 그러자, 분위기를 일신하고 싶어, 드리스는 힙합춤을 선보였고 그제서야 필립의 얼굴에 웃음이 터져 나왔다. 그동안 한번도 없었던 경쾌한 음악의 선율이 방안을 앞도한다. 이렇듯 드리스는 필립의 의중을 읽을 줄 아는 가까운 친구가 되어있었다.

드디어 필립은 드리스의 도움으로 펜팔을 했던 여인과의 만남을 갖게 된다. 그리고 몇해 뒤 그들 사이에는 자녀가 탄생한다. 이제 필립은 전동휠체어에서 드리스의 도움 없이도 생활하게 되었고 그들은 삶을 함께 나누는 친구사이가 되었다. 이것으로 영화의 대단원의 막이 내린다.

※ 한일성어르신은(1925년생) 2012년 2월 1일 앙로원에 입소하여 생활하시는 분입니다.





이 종 민 물리치료사

쉬어가는 곳

물리치료사로 병원에서만 근무하다가 사회복지시설에서 처음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 몇 가지 다른 점이 크게 놀라웠습니다. 보통 퇴행성, 만성 노인성 질환은 빠른 효과를 보기 힘든 경우가 많은데 병원을 방문하시는 어르신들은 조금이나마 과해 마음의 병까지 얻어 몸상태가 더욱 악화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기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마음이 평화롭고 잔잔하며 여유롭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에도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사회와 달리 이 안의 어르신들은 항상 여유롭게 웃어넘기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사소한 것에 고민하고 사사로운 생각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며 마음 편히 사시는 모습을 보며,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너무 신경쓰며 얽매어 살아온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보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幕逐有緣(막축유연)
勿住空忍(물주공인)
一種平懷(일종평회)
泯然自盡(민연자진)

인연을 좇지도 말고,
적멸에도 빠지지 않아서
한 가지 그대로만 지니면
헛(된) 것은 스스로 다하리라.

일종(一種)이란 생각도 열반도 초월한 어떤 것을 가지고 모든 생각을 쉬어 간다는 뜻이고, 평회(平懷)라는 것은 생각을 쉬고 경계에 다시 끌려가지 않아서 자기의 마음을 어떤 경지에서 평평히 하면 그때가 자기를 알아차리는 순간이요, 불법의 견해가 바로 들어서는 때입니다.

원장님께서 주신 『신심명』이란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 어르신들의 밝은 표정이 같이 떠올랐습니다. 이 곳은 치열했던 그들의 삶에 모든 것을 잊고 마음편히 쉬어가는 곳이라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쉬어가시는 동안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혜명한마당



| 물리치료 |

어르신들의 통증을 조절하고 신체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물리치료실이 상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의무실 |

박기순어르신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대림 성모병원에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 생활실 |

우리 어르신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간식 1위는? 바로 치킨이랍니다.



| 영양실 |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지역어르신과 입소어르신들에게 갈비탕과 간식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 19대 국회의원선거 |

4월 11일 근교초등학교에서 선거를 하였습니다. 투표용지를 미리 나눠 드렸고 거동이 자유로운 분들은 스스로 참여하셨고 거동이 힘든분들은 원의 차량으로 이동시켜 드렸습니다.



| 어버이날 행사 |

5월 8일 제 6회 지역어르신과 함께하는 어버이날 행사를 하였습니다. 은빛예술단의 공연과 식사로 이루어진 행사는 자칫 외로울 수 있는 어버이날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창덕궁 비원 나들이 |

5월 4일 창덕궁 특별관인 비원을 다녀왔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우리문화의 소중함과 아름다움을 다시한번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 연등만들기 |

4월 26일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자원봉사자와 몇 분의 어르신들이 입소어르신들의 연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작업치료 |

3월 20일~ 6월 19일 금천구치매지원센터에서 작업치료를 실시하여 입소어르신들을 모시고 내방하여 12회기 치료를 받았습니다.

혜명동정



시설개요

- 시설명 : 혜명양로원
- 운영재단 : 대한불교 조계종 도선사
- 개원일 : 1982년 4월 10일
- 설립자 겸 시설장 : 박재근 (현성큰스님)
- 정원 : 64명 (남28명/ 여:36명)
- 소재지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

입소대상 (무료입소)

- 입소대상 :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입소신청
거주지동사무소(상담 및 신청)
관할구청(심사 및 의뢰)
금천구청(심사 및 의뢰)
양로원(상담 및 입소결정)

직원현황

- ▶ 총 17명
- 원장 1명 / 사무국장 1명 / 시설과장 1명
간호사 1명 / 영양사 1명 / 사회복지사 1명
생활지도원 5명 / 물리치료사 1명
위생원 1명 / 서무 1명 / 조리원 3명

입소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가족관계증명서
3. 수급자증명서
4. 건강진단서(보건소발행)
5. 증명사진 4장
6. 우리은행 통장
7. 주민등록증, 도장

현재 입소인원 (6월 30일 기준)

- ▶ 총 64명 (할아버지 : 28명 할머니 : 36명)

2012년 상반기 후원금 수입.지출내역

수입		지출	
후원금종류	금액	지출내역	금액
전기이월	47,049,552	사무비	8,174,400
지정 후원금	6,644,000	재산조성비	5,755,100
		사업비	16,011,012
비지정 후원금	16,815,535	프로그램 사업비	1,071,130
		차기이월	39,497,445
합계	70,509,087	합계	70,509,087

자원봉사자

2012년 4월 1일 ~ 6월 30일

이승희, 민경숙, 소미숙, 한상애, 이양숙, 황옥경(밀그림색칠화사회), 문덕녀(대림미용실), 임호순외6명(치과진료), 조규용, 김용기, 유만수(한방침술봉사팀), 오정은(건강체조), 백련사울림회, 오정자(아코디언), 박미란(말벗), 김동섭, 최지현, 한은옥, 남미영, 최소희, 윤정빈(우담바라), 소미숙, 한종임, 한희주, 김미정, 이정순(민들레모임), 이강택, 임효정, 양승학, 황춘자, 함미옥, 김남숙, 김옥심, 김영미, 이선녀, 선태순(알송달송구연동화), 신숙례, 전옥선, 고준자, 박광예, 이원자, 이득남, 김영미, 이정조, 임태경(자비나눔예술봉사단), 박상근 외 4명(메아리예술공연단), 성낙권, 박종보, 손선희, 백영일, 조용대(삼운회), 김소연(행복날개수련원)

후원자

※ 혹시 소식지에 기재되지 않으신 후원자님께서는 넓은 이해를 바랍니다.

후원물품

윤숙현, 백련사, 금천푸드뱅크, 안양교도소직원, 문백초6-4, 산업안전관리공단, 자비나눔봉사단, 사랑의 열매, 묵향법사, 원각사, 강금식, 입소인지인, 서서울과학고, 이윤분, 송주한, 삼화양행, 김봉자, 한국화재보험, 박재근위원장님, 민주평통서대문협의회,

후원금품

윤재순 90,000	박성수 120,000	최형기 40,000	권기상 200,000	문금자 30,000	구수미 550,000
구충수 300,000	임옥수 300,000	박두영 250,000	구봉순 30,000	이정호 20,000	김민정 20,000
이에자 10,000	한진택 300,000	조관우 10,000	백승풍 40,000	벽천사 30,000	독지가 96,000
박혜정 30,000	양보금 30,000	기업은행 남부지역본부	900,000	안효주 600,000	김선금 100,000
마희전 50,000	유원조 10,000	박세진 10,000	이순자 60,000	박동필 10,000	황준순 15,000
황재욱 15,000	박성자 15,000	이마트 6,525	조희경 50,000	박기완 90,000	한미옥 20,000
산업안전공단 2,484,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0,000	(주)한국거래소	800,000
박재근위원장님 610,000		민주평통서대문협의회	1,000,000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자원봉사자모집

- 모집대상 : 개인 및 단체 누구나
- 모집내용 : 노력봉사 - 어르신 숙소 청소, 목욕, 식당보조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 치매예방·여가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
의료봉사 - 의료 관련 서비스 실시
정서지원봉사 - 말벗, 책 읽어드리기, 무연고 어르신 결연

후원자모집

- 후원내용 : 현금후원 - 일반후원 1,000원 이상, 결연후원 5,000원 이상
물품후원 - 생활에 필요한 의류, 생활용품, 쌀 등
식품후원 - 어르신들 입맛에 맞는 신선한 반찬류 및 간식류(과일, 빵 등)
가전후원 - 대형텔레비전, 김치냉장고, 재봉틀, 카세트 등
생필품후원 - 락스, 피죤, 옥시크린, 각종 세제 류

정성을 기다리는 후원금 계좌번호

- ① 지로번호 : 7655940
- ① 우리은행 : 1005-901-011284
- ① 예금주 : 해명양로원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드리는 혜택

1. 해명양로원의 모든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2. 해명양로원의 모든 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다.
3. 법인세법 제18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로원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마을 버스 1번 범일운수중점 하차
- 지하철 2호선: 구로디지털역 5617번 중점 하차
신림역 5413번, 5525번 중점 하차

양로원 홈페이지

www.hmtown.co.kr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해명복지원 해명양로원

발행인 : 박 재 근(현성 큰스님)

주 소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241-7번지

연락처 : TEL 02)802-6765

FAX 02)892-2068